

축소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억 8,400만 캐나다 달러 증가한 12억 4,2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국가별, 차주별 신용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손충당금이 9억 9,800만 캐나다 달러 감소했고,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 파생금융상품의 미실현 수익 및 손실이 손익계산서 상에 반영되면서 1억 4,30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

기 때문이다.

한편, EDC의 캐나다 GDP 기여도는 2003년 대비 6.8% 증가한 347억 캐나다 달러이며 작년 한 해 동안 43만 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04년 말 현재 EDC의 총 자산은 208억 캐나다 달러, 총 자본금은 71억 캐나다 달러이다.

【이 진 의】

◆ Coface의 2004년도 영업실적

지난 2월 23일 프랑스 Coface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4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영업수익은 2003년 대비 4.3% 증가한 11억 3,080만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보험손해율³⁾도 46%로 지금까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이익의 71.3%를 차지한 보험 업무이익이 전년 대비 0.8% 증가한 8억 640만 유로였다. 보험 업무성과가 이처럼 저조했던 이유는 2003년도 기준 보험 실적의 26.7%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내에서의 보험 규제가 엄격해진 결과, 보험료 징수액이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그 외 국가에서는 보험료 징수액이 각각 전년 대비 5%와 7%씩 증가하였다.

Coface의 사업분야 중 보험업무 외에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 및 기업신용정보, 매출

채권 관리 등을 포괄하는 신용관리서비스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2억 3,640만 유로의 이익을 달성, 전체 영업수익 중 20.9%를 실현하였다. 특히 지난해 3월 프랑스 내에서 기업정보제공 전문 기업인 Ort社를 인수하여 기업신용정보제공 서비스분야에서 52.7%의 이익 증가율을 보였다.

팩토링 업무는 총 수익의 2.8%인 3,170만 유로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Coface는 지난해 말 영국에서 팩토링 업무를 개시한 것 이외에는 주로 독일 내 영업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수탁업무는 전년 대비 9% 감소하여 총 수익 중 약 5%인 5,640만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Coface가 제공한 단기보증에 대한 지급을 정부계정에서 Coface 자기계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Coface는 2005년에도 고유가 지속 등 불리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

3) 보험손해율(% , loss ratio) = $\frac{\text{지불보험금(claims paid)}}{\text{수입보험료(premium earned)}} \times 100$

일은 물론 타 지역에서 고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3개년 전략⁴⁾을 바탕으로 하여 전년대비 7%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Coface의 업무별 영업수익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총 영업수익	1,084.5	1,130.8	4.3
보험료	799.8	806.4	0.8
신용관리서비스	194.7	236.4	21.4
팩토링	28.0	31.7	13.2
정부수탁업무	62.0	56.4	△9.0

【이진경】

◆ Natexis Banque Populaire, 팩토링 “CREANCEplus” 상품 개선 보강

프랑스 Natexis Banque Populaire의 팩토링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Natexis Factorem은 최근 팩토링 상품인 CREANCE plus를 크게 개선 보완하였다.

개선된 사항은 자금 지급까지의 업무처리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시킨 것이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엄수하기 위하여 새로이 CREANCEexpress라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Natexis Factorem은 동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차별화된 상품의 속성을 부각시키고자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유로를 보상하는 규정까지 마련하였다.

CREANCEplus 상품은 단축된 금융지원 시간 외에도 팩토링 업무에서 중요한 미회

수금에 대한 보증 및 외상매출채권 부도 시 100%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화된 팩토링 상품 제공을 위하여 CREANCe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고객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프랑스에서 팩토링 거래는 11.3%나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기업 중 25%의 기업이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프랑스 내에서는 단기 자금거래에 있어 당좌대출 다음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다. Natexis Factorem은 프랑스 내 시장 점유율이 13.2%인 국내 세 번째 규모의 팩토링 전문기관으로 작년 한 해 105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하여 2003년 대비 9%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4) Coface는 2007년 말까지 주요국 내에서 신용보험, 팩토링, 기업정보제공 및 신용평가 등 다양한 상품판매를 강화하여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업무 전산화 개선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익률을 25% 증가시킨다는 3개년 전략을 수립 시행 중.